

## 간호대학 신입생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의사결정 유형과의 관계연구\*

김 은 주<sup>1)</sup> · 임 지 영<sup>2)</sup> · 최 경 원<sup>3)</sup>

### 서 론

####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현대 사회는 급격한 사회 변화와 다원화로 인하여 인간의 생활양식 또한 빠른 변화와 신속한 적응력을 요구하고 있다. 사회는 인간에게 빠르고 정확한 의사결정 능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으로 인해 인간은 새로운 유형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었다(조은선, 2007).

21세기 정보화 시대와 맞물려 복잡해지는 보건 의료 환경 역시 간호사에게 자율성과 효율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간호사가 대상자를 전인적으로 간호하고 예술과 과학으로 승화되는 간호를 수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능력은 탐구, 적용, 분석, 종합, 평가 등의 비판적 사고이고 이것이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요구됨으로써 비판적 사고능력이 간호영역의 필수적인 구성요소로 대두되고 있다(Simpson & Courtney, 2002). 즉 현대를 살아가는 간호사는 협조적인 자질을 기본으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려는 개방성과 함께 필요한 정보를 시기에 맞게 받아들여 적절히 분석할 수 있는 분석력, 체계성까지 요구받고 있는 바, 간호교육에서의 비판적 사고능력에 관한 관심의 증가는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비판적 사고는 인식된 대상에 대하여 건설적 회의를 바탕으로 그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논리적으로 평가하는 정신과정이다(황지원, 1998). 또한 밀려오는 수많은 정보의 진

실성과 합리적 의사결정에 대한 계속적 회의, 다른 대안을 위한 숙고의 과정이기도 하다(양현서, 2007). 신경림(1996)은 비판적 사고는 관찰, 경험, 반성, 추론, 의사소통으로부터 얻어진 정보를 기술적으로 개념화하고 적용하고 분석하여 통합하고 평가하는 지적으로 잘 훈련된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한편 정길용(2005)은 비판적 사고는 좋은 판단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문제 해결과 합리적 의사결정, 그리고 새로운 개념의 학습을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합리적 의사결정은 가장 효과적인 의사결정 유형이며 의사결정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까지 우수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데(강재희, 2006), 비판적 사고능력을 함양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비판적 사고가 합리적 의사결정에 중요한 과정적 패턴을 제공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최근 간호교육 분야에서도 비판적 사고능력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국내 간호교육 분야의 비판적 사고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간호대학 상급생의 비판적 사고능력 측정연구(신경림, 1996; Shin, 1998), 간호사의 비판적 사고성향에 관한 연구(김진이, 2007; 임은주, 2004; 황지원, 1998), 그리고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비판적 사고성향을 조사한 연구(양승애와 정덕유, 2004) 등이 있다. 그러나 비판적 사고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구체적인 학습 내용 개발은 미진한 실정이다. 특히 비판적 사고는 단기간 내 습득되어지지 않는데 이는 비판적 사고 과정이 개인의 사고체계 및 의사결정 방법을 합리적으로 전환해야 하는 이념적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주요어 :** 간호학생, 비판적 사고성향, 의사결정 유형

\* 이 논문은 인하대학교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1) 경인여자대학 간호과 부교수
- 2) 인하대학교 간호학과 교수(교신저자 E-mail: lim20712@inha.ac.kr)
- 3) 경인여자대학 간호과 초빙교수

투고일: 2008년 4월 28일 수정일: 2008년 5월 27일 심사완료일: 2008년 6월 18일

다. 따라서 비판적 사고능력은 간호사가 되기 이전인 간호 대학생에서 부터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학습을 통해 지속적으로 훈련,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것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비판적 사고성향 및 의사결정 유형 연구가 필요한 이유 중 하나라 하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비판적 사고성향과 의사결정 유형을 확인하고 이들의 관련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의 입학 당시 비판적 사고성향과 의사결정 유형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과 비판적 사고 능력 함양을 위한 효율적인 학습 중재 개발의 기초적인 근거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비판적 사고성향과 의사결정 유형을 확인하고 이의 관련성을 검증하고자 한 것이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간호대학 신입생의 비판적 사고성향을 확인한다.
- 간호대학 신입생의 의사결정 유형을 확인한다.
- 간호대학 신입생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의사결정 유형과의 관련성을 확인한다.

## 용어의 정의

### ● 비판적 사고성향

- 이론적 정의 : 개인적 또는 전문적 업무에 있어서 문제해결과 의사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목적을 가지고 자기조절적인 판단을 내리는 사고를 중요하게 여기고 이를 사용하려는 개인적인 성향을 의미한다(Facione, Facione, & Sanchez, 1994).
- 조작적 정의 : 본 연구에서는 Facione et al.(1994)이 개발한 비판적 사고성향 측정도구(California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Inventory; CCTDI)를 황지원(1998)이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 ● 의사결정 유형

- 이론적 정의 : 특정한 상황 또는 장차 일어나리라고 생각되는 상황으로부터의 요구나 요청에 따라 목표를 선택하고 그 시점에서 이용 가능한 다양한 수단 가운데 특정한 수단을 선택할 때 사용되는 방법의 분류를 의미한다(Harren, 1979).
- 조작적 정의 : Harren(1979)이 개발한 진로결정 척도에 포함되어 있는 의사결정 유형검사를 고향자(1992)가 번역, 수정하여 사용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 연구내용 및 방법

###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 신입생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의사결정 유형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는 인천시 소재 K대학 간호학 전공 신입생 2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은 자가진술형 질문지를 활용하였다. 자료수집 과정에서 본 연구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결과를 연구 이외에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하지 않을 것에 대하여 설명을 한 뒤 연구에의 참여에 동의한 경우 동의서에 자필 서명을 받고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08년 3월부터 4월까지였으며, 총 200부를 배부하고 197부를 회수하였다. 이 중 분석에 이용된 자료는 총 193부였다.

### 연구 도구

#### ● 비판적 사고성향

비판적 사고성향 측정도구는 Facione et al.(1994)이 개발한 CCTDI를 황지원(1998)이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비판적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7가지 성향 즉, 진실추구 8문항, 개방성 5문항, 분석력 5문항, 체계성 7문항, 비판적 사고 자신감 9문항, 호기심 10문항, 및 인지적 성숙 6문항을 측정하는 총 50문항, Likert 6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총 300점을 만점으로 하여 170점 이하이면 비판적 사고성향이 약한 것으로 해석하고, 210점 이상이면 비판적 사고성향이 강한 것으로 해석한다.

본 도구는 Delphi Project에서 정의한 비판적 사고에서 구성 타당도를 얻었으며, 개발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90 이었고, 황지원(1998)이 수정 보완한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85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87이었다.

#### ● 의사결정 유형

대학생의 의사결정 유형을 측정하기 위해 Harren(1979)이 개발한 진로결정척도(Assessment of Decision Making; ACDM)에 포함되어 있는 의사결정 유형 검사를 고향자(1992)가 번역,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의사결정 유형 도구는 개인이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가를 측정하는 도구로서 합리적 유형, 직관적 유형, 의존적

유형의 하위 영역 각각에 10문항씩 총 3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Likert 4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고향자(1992)의 연구에서는 Cronbach alpha .78에서 .84이었으며, 반분신뢰도는 .77에서 .83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합리적 유형 .74, 직관적 유형 .69, 의존적 유형 .79이었다.

###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version 14.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비판적 사고성향 및 의사결정 유형에 관한 분석은 기술통계를 활용하였으며, 비판적 사고성향과 의사결정 유형의 관련성은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test를 활용하였다.

## 연구 결과

### 간호대학 신입생의 일반적 특성

간호대학 신입생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령 분포는 최소 17세에서 최대 41세까지의 범위로 평균 18.8세였다. 종교는 종교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47.4%로 가장 많았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93)

Variable		F(%)	M(SD)
Age		18.8(2.36)	
Marital states	Unmarried	189(98.0)	
	Married	4( 2.0)	
Religion	Christianity	68(34.5)	
	Catholicism	20( 9.8)	
	Buddhism	16( 8.2)	
	None	93(47.4)	
Residence	With parent	176(90.7)	
	With brothers	1( 0.5)	
	With relatives	10( 5.2)	
	Cooking food for oneself	3( 1.6)	
	With husband	3( 1.6)	

으며 기독교, 천주교, 불교 순이었다. 거주형태는 부모와 거주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90.7%로 가장 많았다.

### 간호대학 신입생의 비판적 사고성향

간호대학 신입생의 비판적 사고성향 정도는 <Table 2>와 같다. 간호대학 신입생의 비판적 사고성향은 평균 3.96점이었고, 하위 영역에서는 호기심이 4.4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체계성이 3.72점으로 가장 낮았다.

<Table 2> Level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N=193)

Sub category	Mean	SD
Truthseeking	3.76	0.44
Open-mindedness	4.03	0.57
Analyticity	3.79	0.55
Systematicity	3.72	0.54
Critical thinking self-confidence	3.79	0.55
Inquisitiveness	4.48	0.49
Cognitive maturity	3.96	0.46
Total	3.96	0.56

### 간호대학 신입생의 의사결정 유형

간호대학 신입생의 의사결정 유형을 파악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의사결정 유형 중에서 합리적 의사결정 유형이 59.1%로 가장 많았으며, 의존적 의사결정은 21.2%, 직관적 의사결정은 19.7%인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Decision making styles (N=193)

Types	n	%
Dependent decision making	41	21.2
Intuitional decision making	38	19.7
Rational decision making	114	59.1

### 간호대학 신입생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의사결정유형과의 관련성

<Table 4> Correlations between critical thinking and decision making styles (N=193)

Categories	Dependent r(p)	Intuitional r(p)	Rational r(p)
Critical thinking	-.382(.000)	.022(.783)	.585(.000)
Truthseeking	-.437(.000)	.080(.293)	.311(.000)
Open-mindedness	-.091(.233)	-.019(.806)	.178(.020)
Analyticity	-.137(.068)	.048(.531)	.371(.000)
Systematicity	-.318(.000)	-.162(.032)	.456(.000)
Critical thinking self-confidence	-.222(.003)	.157(.040)	.328(.000)
Inquisitiveness	-.178(.000)	-.002(.981)	.495(.000)
Cognitive maturity	-.325(.000)	-.010(.891)	.333(.000)

간호대학 신입생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의사결정 유형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비판적 사고성향 전체와 합리적 의사결정은 pearson 상관관계수 .585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의존적 의사결정은 pearson 상관관계수 -.382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반면 직관적 의사결정은 비판적 사고성향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비판적 사고성향의 하위 영역별로 합리적 의사결정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호기심과의 상관관계수가 .49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체계성 .456, 분석력 .371의 순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비판적 사고성향의 하위 영역별로 의존적 의사결정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진실 추구 -.437, 인지적 성숙 -.325, 체계성 -.318의 순으로 파악되었다.

## 논 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 신입생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의사결정 유형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한 것으로 연구 결과에 따른 주요 논의점은 다음과 같다.

간호대학 신입생의 비판적 사고성향 총 평균은 300점 만점에 197.91점이었으며 평균은 6점 만점에 3.96점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김진이(2007)의 연구에서 평균 198.99점, 황지원(1998)의 연구에서 평균 204.9점(3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임), 임은주(2004)의 연구에서 평균 180.22점(3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임)으로 나타난 것과 비교할 때 유사한 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간호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의 정도가 300점을 기준으로 평가할 때 200점 내외 수준으로 중간 정도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비판적 사고성향의 하위 영역 중에서는 호기심이 6점 만점 중 4.4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러한 결과는 황지원(1998), 정덕유(2001), 그리고 김진이(200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측정도구의 내용에서 호기심과 관련된 항목들이 평생교육에 대한 필요성 및 당위성, 그리고 새로운 지식에 대한 관심에 관한 의지 등을 묻는 것이기에 간호대학 신입생이 가지고 있는 지속적인 교육에의 욕구가 반영된 결과라 사료된다.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난 영역은 4.03점을 보인 개방성이었다. 개방성은 상대방의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들을 수 있으며 그렇다고 하여 자신의 의견을 수정하거나 포기하지는 않는 태도를 말한다(Facione et al., 1994). 본 연구의 결과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황지원(1998)의 연구와 김진이(2007)의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다른 영역에 비해 개방성이 낮은 점수를 나타낸 것과는 차이를 보이는 것이었다. 이는 처음 대학에 입학하

여 새로운 학문을 받아들이고 편견 없이 의견을 수용하고 포용하려는 간호대학 신입생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한편, 하위 영역 중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낸 영역은 3.72점을 나타낸 체계성으로 분석되었다. 체계성은 조직적이고 순서 바르게 초점을 맞추어 주의 깊게 탐구하려는 성향을 말하며, 특정한 쟁점이나 질문 또는 문제에 접근함에 있어서 그것이 아무리 성취되지 않는다 해도 순서에 맞게 추구하고자 노력하는 경향을 말한다(Facione et al., 1994). 간호대학 신입생이 비판적 사고성향의 다른 하위 영역에 비해 체계성이 낮은 경향을 보인 것은 학습의 초보자로서 문제의 초점을 발견하고 이를 패턴화하는 능력이 부족함을 의미하는 결과로 해석된다. 따라서 향후 간호학에서 비판적 사고능력 함양을 위한 교과목 개발 시에 하위 영역 중 특히 체계성을 개발할 수 있는 내용에 초점이 주어져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진실추구는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지식을 구하고 주어진 문제에 관하여 용기있게 대면하며, 만일 탐구의 결과가 자신의 이익이나 예상과 다르게 나온다 하더라도 정직성과 객관성을 계속 지켜 나가려는 태도를 말한다(Facione et al., 1994). 간호사는 실무 현장 즉, 환자를 대하는 접점에서 지속적으로 간호수행에 따른 새로운 정보와 근거들을 평가해야 한다. Facione et al.(1994)은 간호사가 진실추구의 능력이 결핍되었을 때 변화된 상태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게 되므로 이로 인해 잘못된 간호를 수행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본 연구결과 뿐 아니라 간호사 또는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김진이, 2007; 임은주, 2004; 황지원, 1998)에서도 진실추구의 정도는 중간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인간의 생명을 다루고 그 속에서 대상자를 옹호해야 하는 것이 간호사의 사명임을 생각할 때, 앞으로 간호학생들에게 진실추구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적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간호대학 신입생의 의사결정 유형을 확인한 결과에서는 합리적 의사결정 유형이 59.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결정 유형은 각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으나 가능한 개인 의사결정 시에 합리적 전략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임이 권고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고향자, 1992; Harren, 1979) 이러한 결과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반면 의존적 의사결정 유형도 21.2%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존적 의사결정 유형의 경우 의사결정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을 부정하고 그 책임을 외부로 투사하려는 경향이 높고(강재희, 2006), 의사결정 과정에서 타인의 영향을 많이 받고, 수동적이며 순종적이고 사회적 인정에 대한 욕구가 높아 여러 가지 제한을 받는다고 보고되고 있다(Harren, 1979). 따라서 의존적 의사결정 유형을 바람직한 의사결정 유형으로 변화시켜 나가기 위한 간호 교육적 중재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직관적 의사결정 유형은 19.7%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직관적 의사결정 유형은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은 받아들이지만 미래를 별로 고려하지 않고 정보 탐색 행동이나 대안들에 대한 논리적인 평가 과정도 거의 갖지 않는 특징을 갖는다(강재희, 2006). 직관적 의사결정 유형에서는 선택에 대한 확신은 비교적 빨리 내려지거나 그 결정의 적절성은 내적으로 느낄 뿐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향자, 1992). 즉, 의존적 또는 직관적 의사결정 유형에서는 문제의 원인을 규명함에 있어서 논리적인 평가나 독립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유형을 나타낸 학생들에 대해서 비판적 사고능력 개발을 위한 심층 교육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간호대학 신입생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의사결정 유형과의 관련성을 확인한 결과에서는 비판적 사고성향과 합리적 의사결정 유형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을수록 합리적 의사결정 유형이 많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비판적 사고성향과 의존적 의사결정 유형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즉 비판적 사고성향이 낮을수록 의존적 의사결정 유형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상관관계의 검증은 비판적 사고성향이 의사결정 유형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하게 하는 결과이며, 특히 비판적 사고능력 함양을 통해 합리적 의사결정 유형을 개발해 나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따라서 간호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이들의 합리적 의사결정 유형을 더욱 확고히 하고 의존적, 직관적 의사결정 유형을 개선할 수 있는 교과내용 개발과 교수법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연구의 결과가 이러한 학습 중재 개발 시 유용한 근거자료로서 활용되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 신입생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의사결정 유형을 확인하고 이들 관계를 검증함으로써 간호대학의 비판적 사고력 증진을 위한 학습 중재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인천시 소재 K대학 간호학 전공 신입생 200명을 대상으로 자기진술형 질문지를 활용하였다. 자료수집은 2008년 3월부터 4월까지 진행하였다. 연구 도구는 비판적 사고성향 측정도구와 의사결정유형 측정도구를 활용하였으며, 자료의 분석은 SPSS 14.0을 이용하여 전산통계 처리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간호대학 신입생의 비판적 사고성향은 6점 만점에 평균 3.96점으로 중간 수준을 나타냈다. 하위영역 중에서는 호기

심이 4.4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개방성, 인지적 성숙, 비판적 사고 자신감, 분석력, 진실추구, 체계성의 순으로 파악되었다.

- 간호대학 신입생의 의사결정 유형은 합리적 의사결정 유형 59.1%, 의존적 의사결정 유형 21.2%, 직관적 의사결정 유형 19.7%로 각각 파악되었다.
- 비판적 사고성향과 의사결정 유형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비판적 사고성향과 합리적 의사결정 유형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비판적 사고성향과 의존적 의사결정 유형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파악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제언하고자 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 향후 간호대학 신입생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교과목 및 교과내용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 때 본 연구의 결과가 유용한 근거자료로서 활용되어 질 것을 제안한다.
- 아울러 간호학생 뿐 아니라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비판적 사고력에 대한 폭넓은 서술적 연구 뿐만 아니라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부에서의 교육이 실무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의 비판적 사고 능력 및 의사결정 유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적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한다.
- 실무에 있는 간호사의 비판적 사고 능력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실무 교육 프로토콜도 개발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 참고문헌

강재희 (2006).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자아존중감, 의사결정유형,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정신건강 간의 관계분석*.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

고향자 (1992). *한국대학생의 의사결정유형과 진로결정 수준의 분석 및 진로결정상담의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서울.

김진이 (2007). *임상간호사의 비판적 사고 성향과 직무만족도 관계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

신경림 (1996). *간호학생의 비판적 사고능력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26(1), 43-52.

양승애, 정덕유(2004). *간호대학 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에 관한 조사연구*. *성인간호학회지*, 16(1), 156-165.

양현서 (2007). *비판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사회과 쓰기 학습 전략*.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임은주 (2004). *간호사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비판적 사고술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

정길용 (2005). *비판적 사고에 관한 두 가지 접근: 사회과 교*

- 육의 목적 정립을 위한 시론. *사회과 교육연구*, 12, 133-157.
- 정덕유 (2001). *간호대학 상급생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비판적 사고기술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
- 조은선 (2007). *대학생의 의사결정유형과 스트레스 대처방식과의 관계*.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
- 황지원 (1998). *간호사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간호수행능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
- Facione, P. A., Facione, N. C., & Sanchez C. F. (1994). *The california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inventory(CCDTI) test manual*. Millbrae, CA: California Academic Press.
- Harren, V. H. (1979). A model of career decision-making for college students. *J Vocat Behav*, 14, 119-133.
- Shin, K. L. (1998). Critical thinking ability and clinical decision-making skills among senior nursing students in associate and baccalaureate programmes in Korea. *J Adv Nurs*, 27, 414-418.
- Simpson, E., & Courtney, M. (2002). Critical thinking in nursing education: literature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Practice*, 8(2), 89-98.

## The Correlations betwee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Decision Making Styles\*

Kim, Eun Joo<sup>1)</sup> · Lim, Ji Young<sup>2)</sup> · Choi, Kyung Won<sup>1)</sup>

1)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yungin Women's College

2)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Inha University

**Purpos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testify correlations betwee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decision making styles. **Method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93 freshman nursing students in the 1 nursing school located in Incheon area. The data were collected by self-reporting questionnaires.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and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alysis. **Results:** The score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was revealed 3.96 points. The highest was inquisitiveness, the lowest was systematicity. The most frequent decision making style was revealed a rational decision making. The next was dependant decision making, intuitional decision making as follows. Th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rational decision making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However th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dependant decision making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Conclusion:** With these findings, we are found that the more increasing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the more developing rational decision making. It will suggested that the program for increasing nursing student's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focused on systematicity, analyticity and truth seeking in critical thinking sub categories.

**Key words :**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Decision making styles, Nursing student

\* This work was supported by INHA UNIVERSITY Research Grant.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Lim, Ji Young

Department of Nursing, Inha University

#253, Yonghyeon, Nam-Gu, Incheon, 402-751, Korea

Tel: 82-32-860-8210 Fax: 82-32-874-5880 E-mail: lim20712@inha.ac.kr